

1950년대 국민국가 만들기와 상이군인의 ‘몸’*

김 필 남**

차 례

- | | |
|--------------------------------|--------------------|
| I. 들어가며 | IV. 국가의 재건과 이중적인 몸 |
| II. 전쟁의 수행과 영웅화된 몸 | V. 나가며 |
| III. 국민으로 포섭될 수 없는 비사회
적인 몸 | |

국문초록

이 글은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상이군인(傷痍軍人)’에 대해 다룬다. 현재 한국전쟁에 참전한 상이군인의 문제는 규명하기 어렵다. 상이군인은 한국전쟁의 전면에 나선 영웅인 동시에 평생 동안 폭력의 기억을 몸(신체)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 존재이다. 그런데 전후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들의 훼손된 신체는 비극적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쟁의

* 이 논문은 2011년 2월 25일 동아대학교 동남어문학회 주최 하에 ‘21세기 언어와 문학의 방향성’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토대로 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경성대학교 강사

공포를 생성시키는 몸 또는 불구자라는 동정의 시선을 획득한다. 다시 말해 전시 중의 상이군인의 경우 영웅적 존재로 인식되지만 전후사회에서 그들의 몸은 공포와 동정이라는 이중적 시선을 받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이군인은 영웅/폭력/동정이라는 다양한 시선을 받으며 전후사회에서 국민국가 만들기의 도구로 작동되기에 이른다. 이후 상이군인의 몸은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에서 은폐되거나 쉽게 노출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쓰인 본 논문은 전시 중에 창간한 군기관지 『전선문학』과 1950년대 발표된 전후소설을 검토하며 작품 속에서 상이군인이 묘사되는 다양한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국가가 상이군인의 훼손당한 몸을 어떻게 도구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때 『전선문학』의 경우 한국전쟁기에 발간된 매체의 특성을 살려 상이군인의 복잡다단한 구조적 갈등을 파헤칠 수 있다고 믿으며 이에 대해 해명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는 1950년대 전후소설 속에 표상되고 있는 상이군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후소설 속 상이군인의 묘사는 『전선문학』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데 그들의 몸은 국민국가 만들기에 이용되며 이는 국가의 중요성(당위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반공논리까지 확대·재생산 된다.

지금까지 상이군인의 문제를 다룰 때 개인의 감정적 문제로 처리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 이를 탈피해 상이군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상이군인의 몸이야말로 국가의 도구로 ‘포섭’과 ‘배제’라는 이중적인 논리로 작동되어 왔으며, 이때 그들의 몸이야말로 현재 한국사회의 이중성을 고발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몸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상이군인, 『전선문학』, 전후소설, 훼손당한 몸, 국민, 국민국가, 폭력

I. 들어가며

본 논문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이후 전쟁에 참여했다가 살아 돌아온 상이군인(傷痍軍人)¹⁾의 몸이 당시의 문학작품들 속에서 어떻게 전유되고 형상화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상이군인의 모습은 한국전쟁 당시와 전후를 기점으로 다르게 표상되고 있음을 기존의 서사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국가로부터 상이군인의 몸이 이용당했음을 의미 한다. 1950년 한국전쟁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수의 남성들이 전쟁에 동원²⁾되었다. 전쟁에 동원된 남성의 육체가 적으로부터 공격(훼손/절단) 당해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 몸은 영웅화 된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상이군인의 몸은 사회에서 숨겨져야 한다. 전쟁의 참혹했던 기억을 지우고 국가의 재건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이군인의 몸은 영웅적인 동시에 숨겨져야 하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성적인 면모는 한국의 국민국가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상이군인 연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상이군인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국가원호제도에서 비롯되었다.³⁾ 연구는 1961년 원호처가 조직되면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때 상이군인을 포함한

-
- 1) 상이군인의 의미는 참전군인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전쟁의 경험과 기억을 안고 있는 자, 다친 몸을 자랑스럽게 간주한 자, 몸의 상흔을 안고 있는 자를 뜻한다.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상이군인 그 자체가 반공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겪은 군인 모두를 상이군인이라고 칭한다.
 - 2) 전쟁 시작 시점에는 남한 병력은 총 10만 5,752명이었다. 1950년 9월까지 남한이 상실한 병력은 총 8만 7,539명이었으며 1951년 1월에는 28만 8,808명까지 달했다. 전쟁 한 달 만에 서울, 경기, 충청, 전라지방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병력을 확충하였다. 당시 14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법령에 따른 징집, 지원병, 가두 모병, 단체별 집단입영, 학도병, 제 2 국민병 모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될 수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0년대 말까지 병력의 증가는 총 22만 544명에 달했다.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305-306쪽.
 - 3) 원호처, 『한국원호제도발전과정:1948-1968』, 서울, 1968; 원호처, 『원호 10년사』, 서울, 1974, 원호처, 『한국의 원호정책』, 서울, 1983 등이 있다.

각종 대상자들에 대한 원호제도 등이 소개되었다. 상이군인 연구에 있어 실증적 자료인 연금, 교육, 생활수준 등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자는 이두성과 황선규⁴⁾ 등이 있으며 한국전쟁이 국민국가 만들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한 연구자로 김진기와 한경희⁵⁾ 등이 있다. 상이군인의 전쟁경험과 그 기억을 불러와 연구하는 연구자로는 천희숙과 이임희⁶⁾ 등이 있다. 후지이 다케시의 경우 국가의 국민으로 확인받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전쟁 중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의 경우 전후사회에서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정치깡패 등으로 변모했음을 지적⁷⁾하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상이군인을 다룰 때 공적 문제로 기술하지 않고 개인의 구술(기억) 등 감정적인 문제로 처리하고 있다. 즉, 상이군인의 문제를 단순·감정적, 회고, 자전적 기록, 일기, 수필, 구술에 의존해 왔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자각하며 본 연구는 감정적, 보편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한국전쟁 당시와 전후 발표된 작품을 통해 좀더 이성적 시선으로 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이 글은 1952년 창간된 군기관지인 『전선문학』⁸⁾ 속의 서사물과 1950

-
- 4) 이두성, 『상이군인 원호문제』, 대한군경원호회, 1960; 황선규, 「상이군인 보상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63;
 - 5) 김진기, 「반공호국문학의 구조」, 『상허학보』20집, 상허학회, 2008; 천희숙, 「한국전 참전 군인의 부상경험」, 『국군간호사관학교 논문집』제21집, 군진간호연구소, 2002.
 - 6) 이임희, 「상이군인들의 한국전쟁 기억」, 『사림』제27호, 수선사학회, 2007; 한경희,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국가주의의 시선」 『한국시학연구』제21호, 한국시학회, 2005.
 - 7) 후지이 다케시, 「돌아온 국민-제대군인들의 전후」, 『역사연구』제14호, 역사학연구소, 2004.
 - 8) 『전선문학』(1952년 4월-1953년 12월)은 총 7호를 냈으며 매호 3,000부 정도씩 발간했다.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6월 28일 대전으로 피신한 문학인들(임궁재, 서정주, 조영암, 김송 등)이 문총구국대를 결성한다. 이후 1951년 5월 대구에서 단장 최상덕, 부단장 김송, 상임단원 최태웅, 박영준 등 23명이 육군중군작가단을 결성한다. 육군중군작가단은 예술제를 개최하여 연극 <고향사람들>(김영수 작)을 공

년대 후반 발표된 전후소설에 나타나는 상이군인의 모습이 어떻게 전유되고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핀다. 이를 통해 국민국가 만들기에 이용당한 상이군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시와 전후문학의 시기를 분류⁹⁾함으로써 국민국가 만들기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지점을 찾을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수행 과정에서 상이군인을 바라보는 방식과 전쟁이 끝난 후 국가재건 당시의 상이군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의미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군기관지 『전선문학』을 살펴보는 이유는 전쟁 중에 발간된 잡지라는 시의성과 더불어 잡지에 실려 있는 서사물 속 상이군인의 구체적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종군작가단이 직접 전쟁의 체험을 글쓰기¹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전선문학』이 군기관지이기 때문에 반공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이군인을 그럴 때 그들은 국가의 부름에 ‘유순한 국민’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유순한 태도 때문에 『전선문학』이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외에 상이군인의 모습이 영웅적이거나 비사회적인 모습 등의 단일한 모습으로 포착되지 않고 균열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사회학적인 맥락에 비추어 검토해보겠다.

연하고, 종군보고 강연회, 문학과 음악의 밤, 문인극 공연, 육군의 밤 방송 등을 실시하였다. 일련의 활동 중 기관지 『전선문학』을 1952년 4월 창간한다. 배개화, 『『전선문학』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이데올로기와 전쟁체험의 문학화 방식』, 『개신어문연구』제28집, 개신어문학회, 2008.

- 9) 한국전쟁의 체험을 문학화한 것을 ‘전쟁문학’이라고 보는 것이 관례다. 이 개념은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는 모든 작품들을 아우르는 말로서 전시(戰時)와 전후(戰後) 그리고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작품들을 포함한다. 배개화, 위의 논문, 194쪽. 본고의 경우 전시 중에 발표된 『전선문학』 작품과 전쟁이 끝난 뒤 1950년대 후반에 발표된 전후소설을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 10) 한수영은 ‘국민의 형성’과 관련된 통과제외의 결정판이 바로 종군작가단의 복무라고 보고 있다. 한수영, 「전후세대의 문학과 언어적 정체성-전후세대의 이중언어적 상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제58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7.06, 12쪽.

II. 전쟁의 수행과 영웅화된 몸

지금까지 상이군인은 전장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은 존재로 전장의 상흔을 몸 안에 간직하고 있으며 경원대상으로 간주되거나 반공이데올로기의 담지자로 규정되어 왔다.¹¹⁾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전쟁이 수행되던 당시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상이군인의 모습은 영웅적¹²⁾으로 묘사된다. 전쟁의 긴박한 상황에서 군인이 된다는 의미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병신’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상이군인은 규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이군인을 다룰 때 ‘영웅’으로 등장하고 있는 작품이 다수 있다.

「육군중군작가단」 기관지 『전선문학』은 1952년 4월 창간되어 1953년 12월까지 총 7호를 발행하였다. 이 잡지는 군기관지답게 군인의 우월성과 군인을 영웅화 하는 작품 즉 잡지의 창간지의¹³⁾와 부합되는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다. 특히 『전선문학』에 실린 작품 중에서는 군인을 영웅

11) 이임하, 앞의 논문, 191-192쪽.

12) 문학작품에서 상이군인을 그럴 때 영웅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도 이승만은 1951년 5월 16일에 행해진 ‘상이군인제대식’에서 상이군인을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상이군인의 몸은 그 자체로 국민으로서 명예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소였다.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제33집,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1, 298쪽.

13) 『전선문학』의 창간사에는 “이제 우리들이 가진 유일무이의 무기인 철필을 들고”, “전선과 후방을 연결하는 연락병이 되”기 위해 예술화 할 것이라고 밝힌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행동인’으로서 군인들의 사기양양에 기여하겠다는 뜻이다. 최득건은 『전선문학』의 문학작품을 선전선의 무기로 사용할 것임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애국심과 반공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작품을 많이 게재했다. 최득건, 「창간사」, 『전선문학』 창간호, 9쪽; 김송, 「조국을 그리며」, 『전선문학』(『문학』 전시판), 1950.10; 신영덕, 『전쟁과 소설』, 역락, 2007, 180쪽.

적 존재로 보는 시각을 볼 수 있다.¹⁴⁾ 이는 전쟁 중에 훼손당한 이들의 신체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싸워 이기는 것이 목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적(북한)에게 공격당한 아군(남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전선문학』 잡지에 실린 작품 중 군인 및 상이군인의 모습을 영웅(국민적 존재)화 하고 있는 작품을 살펴보겠다.

먼저 박영준의 단편소설 <암야>를 주목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한국군의 형상화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소설의 내용은 육사출신 장교인 ‘임대위’가 동생 ‘경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전쟁에 참전한 임대위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헤어진 동생의 생존이다. 어느 날 동생 경재가 빨갱이가 되어 포로로 잡혀 오고 임대위는 좌절하고 괴로워한다. 결국 임대위는 선임하사에게 동생이 전향하면 풀어주기를 부탁하고 선임하사는 그렇게 하겠노라는 약속하지만 동생은 도망치고 만다. 이때 임대위는 도망치는 동생의 등 뒤에서 총구를 겨냥 동생(빨갱이)을 사살한다.

임대위-우리는 확실히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어. 부자의 의리와 형제의 의리마저 빼앗겼나 보오. 인간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의 잔인한 선물이 아니겠오. 너머 서러워 말구 다 잊어 버리시오. 다만 우리에게 이 비극의 시대를 극복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청년의 의무인 동시에 세계적 의무입니다. 아우도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이오. (중략)

14) 배개화의 경우 『전선문학』에 실린 소설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조국애, 동포애, 전우애의 고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유형은 사적인 감정과 애국심을 의미론적 대립항으로 설정하고 후자를 통해서 전자의 갈등을 해결, 극복한다는 방식이다. 2)전쟁이 만들어낸 비극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다. 특히 여기에는 전시소설에서 여인의 수난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3)후방의 분위기를 다루고 있는데 작품들은 전·후방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4)휴머니즘적 경향을 띠는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이 네 유형 모두를 살펴 보면서 상이군인 및 군인의 모습을 검토할 것이다. 배개화, 앞의 논문, 213쪽.

임대위 울기는 왜 울어. 그러서야 싸울 수 있나. 그러지 말구 돌아가서 부하들이나 사랑해! 그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일게요. 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아니겠오.¹⁵⁾

위의 인용문은 ‘형제살해’ 모티브를 통해 애국심과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 이는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보다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있는 군인의 모습이 우선적이어야 하며, 애국적 견지에서만 현사태를 파악할 것을 촉구하기에 가능하다. 동생을 죽인 임대위는 고통스럽지만 이는 사적인 개인감정일 뿐이며, 빨갱이를 사살했기에 군인인 그는 민족적 영웅이 된다. 전시 중 군인은 공적인 인간 즉 영웅으로 존재한다. 임대위가 사살한 것은 동생이 아니라 빨갱이(공적 적)이다. 전쟁 속에서는 피보다 진한 것이 바로 민족적 이념이다. 이 논리는 현재까지도 ‘빨갱이=적’이라는 당위성을 제공하며 반공주의를 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빨갱이를 죽인 군인(임대위)은 제대 후 ‘동생을 죽였다’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외상을 안고 살아 갈 잠재적인 상이군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는 잠시 동안 그를 영웅적 존재로서 떠받들며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한다. 일상적 삶을 살수 없게 된 상이군인에게 국가가 만든 일시적 영웅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방기환의 수필 <전선환상>은 당시 상이군인이 영웅대접을 받았음을 예상케 하는 작품이다. 필자인 ‘나’는 절름발이 친구 ‘허윤수’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허윤수는 잘생긴 얼굴에 말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지만 딱 하나 흠이라면 그가 절름발이임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윤수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절름발이가 된 이유가 한국전쟁 때 수류탄을 던지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동급생이었던 필자는 윤수의 다리가 한국전쟁 때 다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절름

15) 박영준, <암야>, 『전선문학』 창간호, 1952.04, 24-29쪽.

발이 입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친구의 거짓말을 모른 채하며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쳐준다.

‘나는 이런 절름발이가 된 걸 조금두 설어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아마 자네들은 이 맛을 아지 못할걸. 아직 싸움터에 가본일이 없을 테니까’

나는 그만 어이가 없어서 물끄러미 허군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유월 이십 팔일, 괴뢰군이 서울에 밀려들어올제, 나는 다른 국군들과 함께 수류탄을 들고 적 탱크와 마주 싸웠지. 미아리 고개턱에서였네. 내가 손에든 수류탄은 두 개, 나는 바위 뒤에 숨어서 적 탱크가 가까워오기만 기다렸었지’¹⁶⁾

위의 <전선환상>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불구자가 되더라도 그 존재는 민족적 영웅으로 대접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쟁으로 불구자가 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쳤기 때문에 영웅으로 대접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전쟁으로 ‘절름발이 신세’가 되더라도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작품은 보여준다. 이는 당시 상이군인을 바라보는 사회현실을 인식할 수도 있다.

박영준의 소설 <가을저녁>¹⁷⁾도 상이군인을 영웅적으로 보고 있는 작품이다. ‘춘식’은 아내의 전남편이 전쟁 중 전사한 줄 알고 재혼을 한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전남편 ‘태석’이 돌아온다. 태석은 적에게 포위를 당해서 얼마동안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에 전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춘식은 아내와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며 집을 떠난다. 그러나 그가 집을 떠나는 이유는 아내의 행복만을 위해서라고 볼 수는 없다. 전남편이 국가를 위해 싸우고 돌아온 상이군인이기 때문이다. 비군인인 춘식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상이군인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행복은 어찌 되어도 상관

16) 방기환, <전선환상>, 『전선문학』5집, 1953.04, 67-68쪽.

17) 『전선문학』2집, 1952.12, 42-48쪽.

없다는 뜻이다. 전쟁에서 개인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으며 국가의 안위만이 존재한다. 즉, 전시에 상이군인은 국가를 대변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당위이고 실체이다.

장덕조의 <선물>¹⁸⁾은 여성의 시각으로 상이군인에 대해 진술하는 작품이다. ‘은희’는 약혼자 병준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그가 전쟁에 참전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은희는 약혼자의 징집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개인보다 국가의 안위가 먼저임을 느껴 약혼자를 전쟁터로 보낸다. 얼마 후 은희는 부상병들이 후송되어 오는 적십자차를 보고 ‘조국’이라는 글자에 전율을 느끼며 상이군인들에게 애절한 마음을 가진다. 그리고 상이군인을 돌봐야 할 존재는 남아있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습은 전쟁 나간 남편, 자식 등을 기다리는 여성들을 국가내부로 포섭하는 논리다. 또한 이 여성들은 상이군인의 귀환을 영웅적 존재로 부각 시키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듯 한국전쟁기에 발표된 『전선문학』에 실린 소설들은 상이군인의 영웅화와 더불어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한국군의 애국심을 고취¹⁹⁾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전시에 군인이 되어 불구가 되는 것 혹은 목숨을 잃는 것은 남한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Ⅲ. 국민으로 포섭될 수 없는 비사회적인 몸

『전선문학』의 문학작품에 표현되는 군인(상이군인)은 국민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동시에 영웅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공포스럽고 흉악한 ‘적’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상이군인의 ‘몸’이며, 그들은 적과 싸워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구의 몸을 이끌고 사회로 돌아온

18) 『전선문학』4집, 1953.04, 83쪽.

19) 신영덕, 앞의 책, 39쪽.

그들은 실제로 영웅적 존재로 추앙받지 못한다. 상이군인들이 제대 후 마주치는 사회는 급격하게 변해 있다. 그래서 상이군인에게 전전과 전후의 시간이 나누어지고 그 일상은 파괴되어 고통을 겪게 된다. 일상의 붕괴, 갈 길 잃은 방향 상실, 실존적 불안과 혼돈은 상이군인을 폭력적이거나 사회와 단절시키는 성향을 가지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그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한 표출은 집단화, 조직화 되어 공권력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된다.²⁰⁾ 폭력적이며 비사회적인 상이군인의 면모는 『전선문학』의 작품에서 쉽게 살필 수 있다.

전숙희의 <어떤 상이군인>은 대중들이 상이군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혼란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상이군인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혼란한 감정을 드러낸다. 화자는 상이군인을 영웅 혹은 동정의 시선을 보내야 한다는 자기검열을 의식적으로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있다. 상이군인을 영웅적으로 봐야 한다는 국가의 교육적 시각이 의식적 측면이라면, 상이군인들이 ‘결렁대며 모여 다니는 모습’에 겁을 먹거나 또 여성에게 희롱이나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통해 그들을 건달이나 깡패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당시 한국전쟁 발발이후부터 대중들이 상이군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기도 하다.

대구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안은 언제나처럼 발 하나 드러들 틈도 없이 복잡한데 그날은 더구나 무슨 특별한 일이나 있었는지 전에 없이 상이군인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내 마즌컨 의자에는 한쪽다리를 절단해 절름바리가된 군인과 또 그 가운데론 얼굴에 화상을 입어 눈과 코와 입과 그리고 피부까지 다아 그 원상을 잃고 타오그라진 박아지 쪽 처럼 한 대부터 버린 군인 그다음엔 창가를 의지하여 눈먼 군인 하나 새파란 색안경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복잡한 중에서도 이 가없는 불구자된 군인들과 또 씩씩하게 서있는 수많은 군인들을 잠깐 비교해 보

20) 이임화, 앞의 논문, 302쪽.

고 한가닥 애수가 마음에 사무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²¹⁾

위의 인용문은 전쟁으로 병신의 몸은 가졌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군인인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다. 일상에서 상이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물론 전시에는 일시적으로 영웅대접을 했지만 국가는 그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직업, 지원 등)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이군인은 건달로 인식되며 사회 주변부를 기웃거린다. 작품 속 화자는 기차 안에서 상이군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희롱이나 던지는 야만인으로 생각하지만 곧 동정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인물로 생각한다. 화자는 상이군인이 건달로 전락했음을 확인했지만 상이군인을 민족적 인물이라고 정리를 내린다. 비록 여성을 희롱하는 존재가 상이군인의 실제 모습일지라도 힘없는 국민들을 대신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싸운 군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체험한 군인 대부분은 육체와 정신적 훼손을 당했다. 전쟁에서 돌아온 상이군인들은 전쟁의 참혹성과 살인(죽음)의 경험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로 인해 그들은 전후 사회에서 폭력적 성향을 가진 존재자 혹은 사회부적응자의 모습으로 전후소설에 자주 등장한다. 또한 상이군인이 약에 의존한 채 분열된 세계에 몸을 맡기거나 자살하는 등의 세계관이 혼란을 보여주는 작품을 볼 수 있다.²²⁾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한국전쟁 이후 고도경제성장 등의 문제로 감춰지고 있지만 결코 감춰질 수 없는 역사의 한 단면이다.

손동인의 <임자없는 그림자>²³⁾는 상이군인의 심리적 불안을 다루고

21) 전숙희, <어떤 상이군인>, 『전선문학』4집, 1953.04. 53-54쪽.

22)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군인의 폭력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1950년대의 작품으로 김동리의 <까치소리>, 서정인의 <후송>, 하근찬, <흰 종이 수염>, 오상원의 <상>, <유예> 등이 있다.

23) 『전선문학』6집, 1953.09. 35-37쪽.

있는 소설로 당시 상이군인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경섭’은 전쟁 중 다리 부상을 당하고 가슴에 총알이 관통하여 고향 ‘사우실’로 돌아온다. 죽지 않고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은 고향의 모든 것이 수타 변해있다.”(35쪽)는 사실이다. 또한 경섭은 자신과 사랑하던 사이였던 혜숙이 부친의 결혼 강요에 못 이겨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안타까워한다. 경섭은 혜숙이 죽음으로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한 팔이 없다는 것과 한 쪽 다리가 불편한’ “병신”(37쪽)임을 알았다면 혜숙이 반갑게 맞아 주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진다. 이렇듯 일상생활로 돌아온 경섭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후 경섭에게서 전쟁터에서의 영웅적인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경섭은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는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김송의 「불사신」은 전선에서 세 번이나 총에 맞고도 겨우 귀 한 짝밖에 잃지 않은 상이군인의 이야기다. ‘영철’은 휴가(후방위문)를 받아 가족들이 있는 피란지 부산으로 오지만 이곳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곳임을 알게 된다. 휴가를 오기 전 영철은 가족들이 피란지에서 고생스럽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간다. 형은 무역업이 잘되어 유흥을 즐기고 여대생 동생은 양부인 행색을 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랑했던 여인 ‘초희’가 생활고 끝에 형의 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영철이 본 피란지 거리(가족 등)는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방과 다른 모습으로 유흥, 향락, 사치가 넘쳐 나는 곳이다. 그리고 영철은 혼란한 상태에서 초희와 조우한다.

‘영철씨는 나를 혼계하러 왔어요? 나를 매질하려고 불렀어요?’ 하고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눈에서는 싹피런 광채가 튀었다.

‘나를 배반한것, 그리고 초희씨가 걷는 이걸은 불의요 죄악이요’ 영철

이도 마주 서서 고향을 질렀다. 그는 두손까지 와들와들 떨었다.

‘흥! 전선에서 돌아왔음 왔지. 꺾자를 부리지는 마세요. 나도 인간이
 예요. 개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애정이 없이 영육씨와 사느줄 알았
 예요. 영육씨도 나를 사랑하구 그래서 결합한거지요’ 영철의 손이 재빠
 르게 획 날렸다.

‘애정을 모독하지 말아!’ 웨치면서 그 손이 연거푸 초희의 얼굴을 찰
 삭찰삭 때렸다.

‘좋아요. 때려요! 이게 다 무슨 되잖은 폭력행위야!’²⁴⁾

영철은 이미 전쟁 중에 총에 맞아 귀 한 짝을 잃었다. 총알이 불기짱
 을 스쳐지나가기도 했고 발뒤꿈치를 맞기도 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를 넘겨 살아남은 불사신이지만, 영철은 후방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한
 없이 약해지고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 병사들이 생사를 넘나들며 적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기 때문이다. 부대로 돌아간
 영철이 살아서 사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는 아마도 지극처럼 방황할
 것이다. 영철은 이미 타락한 사회를 용납하지 못해 여성에게 폭력을 휘
 두른 존재다. 또한 그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상이
 군인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상이군인이 일상적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신문
 이나 뉴스 등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1952년 9월 칠곡에서 150여명의
 상이군인들은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²⁵⁾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하고 상이군인들은 구금된다. 이때 부산에 있던 상이군인들
 의 경우 칠곡으로 가기 위해 경부선 열차까지 탈취하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²⁶⁾을 보이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다. 이때 국가는 이러한

24) 김송, <불사신>, 『전선문학』5집, 1953.04, 84-85쪽.

25) ‘칠곡사건’은 왜관사건이라고도 불렸다. 『부산일보』에 9월 18일 칠곡에서 충돌사
 건이 있었다고 했고, 9월 20일에 부산진역에 상이군인들이 모여들었다고 보도했
 다.

26) 이임하는 군인이든, 경찰이든, 심지어 폭력배이든 어느 집단도 상이군인의 폭력
 에 대적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그들이 힘이 세다는 의미보다는 거칠고 상식

사건들의 배후에 정치적 조종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상이군인들을 대거 검거한다. 검거가 이루어짐에도 상이군인은 경찰과 충돌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²⁷⁾를 일으키고 결국 국가의 골칫덩이로 전락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다. 그들은 대부분 무직상태, 건달, 정치깡패, 조직폭력배²⁸⁾가 되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 상이군인이 사회부적응자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징집되거나 혹은 자원해서 국가를 위해 싸운 상이군인에 대한 책임을 간과했다.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배워 온 폭력을 사회로 되돌려준다.

대중들은 상이군인과 경찰과의 충돌 등을 지켜보았기에 그들을 영웅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상이군인이 된 몸에 동정의 시선을 보내려 하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폭력적 행위를 하는 상이군인에게 동정의 시선을 가질 수 없다. 그리하여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상이군인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 그들이 일상적 삶을 살지 못한 채 비사회적 인물로 전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국가의 재건과 이중적인 몸

상이군인은 자신의 ‘신체 없음’을 매순간 눈으로 확인한다. 이때 상이

을 뛰어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앞의 논문, 299쪽.

27) 1951년 8월부터 1952년 4월까지 9개월 동안에 상이군인과 경찰과 충돌사건이 89건, 강도 및 절도사건이 85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상이군인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며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신세가 된다. 대한상이군경회 편, 『大韓民國傷痍軍警會 40年史』, 大韓民國傷痍軍警會, 1991, 282쪽.

28) 이정재는 해방 이전부터 동대문시장의 “결렁패의 「리더」였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청년단 종로구단부 단장을 지낸바 있는 주먹계의 거물이다. 1954년 11월의 소위 ‘제3세력 제거 음모사건’에서 이정재는 “신익희는 내가 상이군인에게 명령하였으니 내일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정재가 상이군인을 자신의 부하로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지가 다케시, 앞의 논문, 279쪽 참조.

군인에게 불구의 의미는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의 불구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불구자로 만든다. 전시 중 상이군인은 싸워 이겨야 하는 당위성으로 인해 영웅적 존재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전후에는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혀 폭력적(혹은 동정의) 존재로 한순간 전락한다. 전후 국가의 목표는 국가재건이었고 이때 상이군인의 ‘신체 없음’의 표식은 비참했던 전쟁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존재해서는 안 될 몸이다. 그런데 숨겨져야 할 상이군인 존재가 전후소설에서는 희망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국민 국가 만들기²⁹⁾’ 과정에서 상이군인의 몸을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 장은 1950년대 발표된 전후소설에서 상이군인의 몸이 국가와 연결되는 모습을 검토한다. 전후소설에 등장하는 상이군인의 몸은 대중들에게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에 ‘공포’를 생성시키는 동시에 국가를 위해 싸우다 몸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동정’의 시선으로 작동한다. 상이군인의 외상은 감춰지지 않는 법이다. 다리를 절거나 한쪽 팔이 없는 상태는 숨기려 하면 할수록 더욱 부각되어 대중의 시선을 끈다. 이 지점에서 국가는 혼란한 정세를 봉합하기 위해서 상이군인의 몸을 노출시킨다. 다시 말해 상이군인의 몸은 대중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노출시키면서 국가의 보호 및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하근찬의 <수난이대>³⁰⁾는 부자(父子)의 훼손당한 신체를 그리고 있

29) ‘국가 만들기’란 의미는 대중동원을 통해 그 동력을 찾을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을 통해 새로운 국가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해 반공이데올로기의 생산은 절대적인 적을 생산하고 비인격적인 속성을 가진 국민이라는 관념적 허구로 구성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외교와 안보행위같이 사회영역을 가지는 국가는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 행위자’가 된 것이다. 즉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허구적) 국가는 국민을 통해 구체적인 실체가 되는 것이다. 한경희, 앞의 논문, 202-203쪽 참조.

30) 하근찬, <수난이대>, 『현대한국문학전집13-하근찬·정연희·한말숙』, 신구문화사, 1966.

다. 소설은 아들 ‘진수’가 한국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던 ‘만도’는 태평양전쟁기에 징용으로 끌려가 노역에 동원되었던 기억을 불러들인다. 만도는 팔이 한 짝 없는 불구자인데 그가 팔을 잃게 된 이유는 터널 발파작업을 위해 다이나마이트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굴 밖으로 대피하려는 순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작가가 두 전쟁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태평양 전쟁은 만도가 불구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며 그것이 남(일본)이 일으킨 강제적 전쟁 때문임을 알려준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비극적인 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진수가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보인다.³¹⁾ 만도는 전사하는 자가 대부분인 전쟁터에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황송해 한다. 또한 부자는 불구자가 된 자신의 몸에 적응해야 함을 느끼며 삶을 살아갈 방도를 궁리한다. 전쟁에 동원된다는 것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받는 행위이다. 만약 소집에 불응한다면 ‘빨갱이’로 오인 받아 곤혹을 치렀음이 분명하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 부자에게 한국전쟁은 당연한 의무이기에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오상원의 <白紙의 記錄>³²⁾ 또한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두 형제를 통해 전쟁의 비극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엿보게 한다. 형 ‘중섭’은 전선에서 부하를 구하려다 오른손과 다리 하나가 절단된 불구자이다. 동생인 ‘중서’는 온전한 몸으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으나 전쟁터의 기억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가 깊어져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이군인이다. 형제는 전쟁 이전에는 온전한 생활을 영위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이 완전히 와해되었다.

31) 한수영, 「관전사(貫戰史)의 관점으로 본 한국전쟁 기억의 두 가지 형식: 선우휘의 「불꽃과 하근찬의 「수난이대」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113집, 한국어문학회, 2011, 448-449쪽.

32) 오상원, <白紙의 記錄>, 『사상계』, 1957.12.

의과대학생이던 중섭은 전쟁이 끝난 후 의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자살을 시도한다. 자살은 실패에 그치지만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어느 날 중섭은 병원에서 근무 하던 준을 만나고 그 후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 준은 준석처럼 불구의 몸을 가졌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며 갱생에 힘을 쏟는 존재다. 준의 안내와 협조에 따라 중섭은 전쟁의 비극에서 점차 벗어난다. 중서의 경우에도 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존재이다. 중서는 자포자기 생활 속에서 방탕한 나날을 보내다 옛 애인이었던 정연을 만난다. 정연은 전쟁 통해 어머니를 잃고 남자들에게 당했던 일 때문에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정연을 만난 중서는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그녀를 돌보는데 힘을 쏟고 그로 인해 전쟁의 참혹한 기억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때 과거의 기억을 회복한 정연이 자살을 하는 비극적 결말이기는 하지만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성의 문제를 논의라고 본다면,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를 입었던 중서가 전쟁의 비극적 기억을 잊을 수 있었다는 데서 소설의 결말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소설은 전쟁에서 상처 입은 상이군인들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전쟁에는 절대적 파괴도 존재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재생’³³⁾의 의미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재생은 개인의 삶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상이군인의 몸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불구자가 된 상이군인조차도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면 불안에 떠는 대중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상이군인의 훼손당한 몸의 이유를 체계적으로 살피지 않는다.

상이군인의 몸을 희망적으로 읽고 있는 소설로는 황순원의 <소리>³⁴⁾에도 잘 나타난다. 소설은 한 인간이 전쟁체험으로 폭력적인 몸을 가지

33)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2002. 111쪽.

34) 황순원, <소리>, 『현대문학』, 1957.05.

게 됨을 보여주며, 주인공의 전쟁 전후를 비교하며 그의 변화 모습을 포착한다. ‘덕구’는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은 상이군인이다. 그는 전쟁터에서 눈을 다칠 때 ‘왼쪽 눈에서 흐른 피가 성한 오른쪽 눈까지 덮어버렸던 것처럼’ 전쟁은 몸 뿐 아니라 세계를 보는 눈까지도 불구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³⁵⁾ 하지만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 알 수 있는 것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덕구의 선량한 성격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³⁶⁾ 즉 <소리>는 전쟁의 폭력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전쟁의 참혹한 기억은 잊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時間>³⁷⁾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다. 소설은 세 군인이 전쟁 중에 낙오되면서 그들의 불안과 연대를 그리고 있다.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을 주대위, 주대위를 부축하는 현중위, 김일등병 세 사람은 남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을 다룬다. 이때 현중위는 주대위를 부축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주대위가 권총으로 자결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도망간다. 김일등병은 이 사이에서 인간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상호연대하며 결국 죽음을 앞둔 주대위로 인해 구원의 방향으로 길을 잡게 되고(개 짖는 소리)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쟁의 기억이란 하루라도 빨리 잊어야 하지만 이는 국가의 욕망이 깔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황순원의 두 작품은 전쟁에서 오는 참혹한 기억

35) 허명숙, 「황순원 소설의 이미지 분석을 통한 동일성 연구」, 숭실대 박사논문, 1996, 93쪽.

36) 임신한 아내에게 발길질을 하고 나왔던 폭력적인 덕구가 성격변화의 계기를 가지게 되는 장면으로 병아리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의 상징이었던 ‘김중사’의 ‘히헿’거리는 웃음소리가 구체적인 전쟁체험을 통해 뒷받침 되었다면, 병아리의 울음소리는 덕구의 성격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즉 생명 무시, 폭력의 구체적 근거로 전쟁이 있지만, 생명에 대한 자각이나 경외감의 근거로 덕구가 원래 선량한 사람이라는 점과 곧 그가 아버지가 되기 때문으로 변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형규, 「1950년대 한국전후소설의 성술행위 연구-전쟁 기억의 의미화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논문, 2004, 59-62쪽 참조.

37) 황순원, <너와 나만의 時間>, 『현대문학』, 1958.10.

과 심리적 불안감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에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말로 국가재건에서 요청되는 바다.

당시 상이군인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기에 백수로 생활하거나 일부는 정치깡패로 살아갔다. 그들은 자신이 불구임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 팔에 쇠갈고리를 다는 등 정상인처럼 일상적 삶을 살기 위해 노력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과 달리 위의 소설들에 등장하는 상이군인들은 사회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 보인다. 소설에서 상이군인이 사회적 인간으로 변모하는데 그 이유는 상이군인이 대중들에게 안심과 위안을 주는 기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쟁의 참혹성을 눈앞에서 본 상이군인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데, 대중 또한 이를 극복하고 국가재건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상이군인의 존재가 국가재건을 위해 포섭하는 동시에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나가며

국가를 위해 혹은 어떤 이념도 없이 전쟁에 동원되었던 ‘그들이’ 살아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이라는 지울 수 없는 각인을 몸에 새기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 1950년대 창간된 『전선문학』과 전후소설을 통해 상이군인의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이때 전시와 전후라는 시기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이군인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쟁 발발 직후 상이군인의 훼손된 신체는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제일 영광스러운 죽음은 나라에 일이 있을 때에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아가 순국하는 죽음일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중략) 겨우 생명을 보존한 상이군인들”³⁸⁾이라는 이승만의 말처럼 상이군인의

몸은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었다. 그러나 전쟁중반부터 상이군인은 건달/폭력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은 때를 지어 다니면서 경찰과 대치하거나 공공질서에서 폭력을 일삼는다. 상이군인의 몸은 사회에서 어떤 노동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했고 이는 그들이 비사회적인 인물이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1950년 후반부터 상이군인들의 몸이 국가권력에 이용당한다. 국가권력은 상이군인의 폭력을 제압 하고 동시에 그들의 몸을 긍정적 시각으로 유도한다.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을 겪은 상이군인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문학)을 통해서 말이다. 국가는 어떤 말과 행동보다 상이군인의 훼손/절단당한 몸을 보여주는 것만큼 국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상이군인의 몸은 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은폐와 노출의 구조, 영웅적, 동정, 폭력적인 시선을 통해 작동해 왔다.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인해 상이군인 연구는 감정적인 문제나 국가보상 문제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몸이야말로 당시 상황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기체다. 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개인의 몸이 어떻게 도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이군인은 현재까지도 명징하게 말해지지 못하고 있다. 역사 속에 존재하지만 역사에서 누락된 채 기술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목소리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지금 그들을 말한다는 것은 한국역사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며 더불어 국가 책임 문제까지 불러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정직한 몸을 똑바로 직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로 인해 국민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읽어내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8) 「상이군인제대식에 보내는 치사」, 공보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953. 169쪽.

참고문헌

자 료

- 육군중군작가단, 『전선문학』1-7권, 1952.4-1953.11.
오상원, <白紙의 記錄>, 『사상계』, 1957.12.
하근찬, <수난이대>, 『현대한국문학전집13-하근찬·정연희·한말숙』,
신구문화사, 1966.
황순원, <소리>, 『현대문학』, 1957.05.
황순원, <너와 나만의 時間>, 『현대문학』, 1958.10.

논문 및 저서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395-397쪽.
김진기, 「반공호국문학의 구조」, 『상허학보』20집, 깊은샘, 2007.
김영희 외, 『민족과 국민, 정체성의 재구성』, 혜안, 2009.
김형규, 『1950년대 한국전후소설의 성술행위 연구-전쟁 기억의 의미화
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논문, 2004, 59-62쪽.
대한상이군경회 편, 『大韓民國傷痍軍警會 40年史』, 大韓民國傷痍軍警會,
1991, 282쪽.
문학사와비평연구회,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305-306쪽.
배개화, 『『전선문학』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이데올로기와 전쟁 체험의
문학화 방식』, 『개신어문연구』제28집, 개신어문학회, 2008, 194-
215쪽.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연구-반공텍스트의 기원과 고백의 정치
학」, 『우리어문연구』27권, 2006.
신영덕, 『전쟁과 소설』, 역락, 2007, 39쪽, 180쪽.

- 이임하, 「상이군인들의 한국전쟁 기억」, 『사람』제27호, 수선사학회, 2007, 190-192쪽.
- _____,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제33집,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1, 298-299쪽.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1945-1990』, 민음사, 2002, 108-111쪽.
- 유철상, 『한국전후소설연구』, 월인, 2002.
- 한수영, 「전후세대의 문학과 언어적 정체성-전후세대의 이중언어적 상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제58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7, 12쪽.
- _____, 「관전사(貫戰史)의 관점으로 본 한국전쟁 기억의 두 가지 형식 : 선우희의 「불꽃」과 하근찬의 「수난이대」를 중심으로」, 『어문학』제113집, 한국어문학회, 2011, 448-449쪽.
- 한경희,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국가주의의 시선」, 『한국시학연구』제21호, 한국시학회, 2005, 202-203쪽.
- 허명숙, 『황순원 소설의 이미지 분석을 통한 동일성 연구』, 숭실대 박사 논문, 1996, 93쪽.
- 후지이 다케시, 「돌아온 국민-제대군인들의 전후」, 『역사연구』제14호, 역사학연구소, 2004, 279쪽.

<Abstract>

Discussion of Disabled Veterans in making Nation-State in 1950's

Kim, Feel-Nam

It is difficult to proof Disabled Veterans, Every war involves violence, and that remains on their memory. They want to forget that miserable memory, but it is impossible to forget since imprinted seal in their body as 'losing arm' and 'losing leg'. Therefore Disabled Veterans tragic existence that exhibit war violence on their body. But their injured bodies aren't the process of tragic existence after the Post-War society. It is an ironic existence between 'violence' and 'sympathy' During the wartime, Disabled Veterans were heros, but in the Post-War society, they began to exclude their existence. Because they carry in themselves bad memory of war, and make up 'scary' (unconsciously) among the people. But they had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Nation, and get people's 'sympathy'(consciously) at the same time, and be respectful in their countries. This duplication view point-'violence' and 'sympathy'- about Disabled Veterans process to make 'Nation-State'.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will look into 『Geonseon Munhak』 and 1950's Post-War Novels that published for wartime, will look into those things are how to describe Disabled Veterans's memory and Disabled Veterans's body how to using by nation. At first, according to features of Korea Wartimes's media, throughout 『Geonseon

Munhak』, we will dissolve Disabled Veterans’s constructive conflict. Next, we will look into Disabled Veterans in 1950’s Post-War Novels. That ‘s completely different from 『Geonseon Munhak』. Duplication body whose Disabled Veterans in Post-War Novels is used to make Nation-State. Furthermore Disabled Veterans’s body aware necessity of nation, and their meaning extend to Anticommunism.

Until now, we just thought that Disabled Veterans problem is individual and an affective problem, but now we need to change our minds, and have to find new aspect for them. Disabled Veterans’ body(Memory) that composed by ‘exclusion’ and ‘connotation’ is most important existence that for mature into Nation-State.

Key Words : Disabled Veterans, Korea War, 『Geonseon Munhak [War Front Literature]』, Focused on Post-War Novels, making Nation-State

■ 논문접수 : 2012년 3월 15일

■ 심사완료 : 2012년 3월 31일

■ 게재확정 : 2012년 4월 10일